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하나님 제목:하나님의 오른손의 해(Year) 성경: 시편77편13-20절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사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 시고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아굽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16 하나님이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은 음도 진동하였고

17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 77:14-20)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10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77:10-11)

- 오른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의 손을 상징.
-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해. 올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해.
- 우리나라에, 우리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다.
- 꼬이고 막힌 인생.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가장 답답하였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 요구되었다.
-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기 시작한 해.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온통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했었다.

10절 이전의 시편 기자의 심정은 참담함.

-뭔가 풀리지 않는, 진퇴양난의, 오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결코 이해되지 않는 삶.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말 해 보았자, 내가 부끄러울 뿐.

-나는 답이 없는 우물을 팠고, 길이 아닌 곳으로 나아갔고, 아무런 답이 없는 동네 형들을 따라 갔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친 아버지 되신 분.

-괜히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빠지셔서 말씀 않으신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 할까봐 모른척 하셨을 뿐. 우리가 하나님께 한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를 반갑게 반기시는 분. 가장 다정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이해가 많으신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답을 원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길 원하면?

-이리 저리 갈팡 질팡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하나님께 조금 더 선행야 한다. 하나님을 조금 더 존귀하게 대우 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목상해야 한다.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야 한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문이 확 열린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의 문, 사랑의 문, 해답의 문, 시원한 문, 밝은 문, 풍요로운 문을 여신다.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2. 속량하시는 하나님.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아굽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속량이란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로 있던 상황.

모든 백성이 바로의 노예였는데, 요셉이 왕의 간섭을 멀리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축산업을 선택함.

후에 사람이 늘어나자, 반역을 두려워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함. (모세때에 이르러 극에 달함.)

-모든 사회에서 왕따 구조는 순식간에 형성된다.

-존중받고, 존중하기 보다는 미묘하게 차별한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차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3.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16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은 음도 진동하였고

시적 표현. 바다가 열리고 바다 안에 있던 물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뜻.

17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러가지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궁창의 소리는 우렛소리, 주의 화살은 번개

18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렛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음, 홍해가 갈라짐.

-지난 한해는 기적과 같은 해였다.

-온 나라가 새롭게 솟아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틀마저 다시 정립해야 하는 해였다. 앓던 이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나와 한다.

-지난 한해는 갈팡 질팡하는 해였다.

-올해는 기적의 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원망이나, 음란, 탐욕, 기득권적 권위주의, 독재, 우울함, 분쟁, 고소나 고발, 전통적 가치의 훼손, 폭력, 욕설, 비방, 따돌림 등으로 더럽히지 말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자.

4. 우리를 선한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0 주의 백성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행이 있다. (공의, 자비, 사랑, 새로운 세계, 권능, 지혜, 영광)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전진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관계      제목: 하나님 먼저      말씀: 요한복음 15장1-12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아무리 실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이면서 붙어있지 않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뜻.

-말씀을 잘 받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겸손하지 않는다든지... 교만.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기록해짐.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

-이혼이란,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불가불 하는 것. 싫다고 하는게 아니다.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

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15:1-12)

오직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생은 도약한다.

행복을 경험한다.

담대해진다.

비로소 눈이 떠진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른다.

간증문을 작성해 보기.

-이전의 삶과 선린교회와 함께 한 이후의 삶.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향상된 점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였는가?

-내 생각이 건강하게 바뀐 것들의 예 3가지.

-앞으로 나의 숙제들과 사명들. 결단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안정 되게, 평안하게, 풍요롭게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